

韓 · 日兩國 數詞의 語源 究明(Ⅱ)

I. 韓·日兩國 人體語의 語源究明

日本은 가까운 이웃나라이고 文化·經濟等 多方面에 걸쳐서 過去부터 密切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韓日兩國語가 어떤 關係를 가지고 있는지 究明하는 것은 큰意義를 가지고 있다.

II. 韓日兩國의 人體語의 語源

韓日兩國語中 그 語意가 같은 單語를 比較하면 越는 韓國語로 공, 日本語는 「구마」, 群은 韓國語로 무리, 日本語는 「무패」, 友는 韓國語로 동무, 日本語로 「도모」로 나타나 아주 親近함을 나타내는 韓語도 있다.

또 한편 兩國語의 같은 뜻을 갖인 韓語를 適切한 順序로 直列配分해도 이러한 現象이 나타난다.

風은 日本語로 「가제」 韓國語로는 「바람」이라고 말한다. 兩國語를 이 順序로 配合하면 「가제바람」이 된다 韓國語에서 強風을 「거센바람」이라고 말한다. 卽 韓日兩國語는 거센바람의 祖語인 「가시바람」이 分離하여 이루어졌다고 斷定할 수 있다.

또 寒은 日本語로 「사무이」 韓國語로 「추워」이다. 兩國語의 語幹을 直列로 連結하면 「사모추워」가 되고 이 말은 韓國語로 아주 추다는 뜻이 된다. 兩國語는 「사모추워」가 分離하여 成立되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紙는 韓國語로 「종이」, 日本語로 「가미」이다. 中國에서 渡來한 紙物은 始初 글 또는 그림을 그리는데 좋은 質(良質의 物件)이라고 불리우고 韓國語에서는 漸次 종이 卽, 종이로 變하고 日本語에서는 좋은 質의 「감」만이 남아서 「가미」로 變했다고 解釋할 수 있다.

本文에서는 前述한 並列 또는 直列法을 利用하여 人體器官에 關한 語源을 究明하고 韓日兩國語가 어떤 關係를 가지고 있는지 檢討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人體語에서 또 어떤 語彙가 派生하고 있는지도 究明하고자 한다.

I. 鼻(日本語·하나, 韓國語·코)

鼻의 祖語는 兩國語를 合한 「하나코」에 가까운 것으로

로 풀이된다.

「하나코」의 뜻은 「하나」가 韓國語數詞「하나(一)에 該當하고 顔面에 一介라는 뜻에서 왔고 「코」가 元來의 鼻를 뜻하는 말이다.

그리고 「하나코」의 原形은 「하나고」이고, 「하나고」의 「고」에서 고(日·子), 굶다(韓·美)의 「고」가 發生하였다.

2. 口(韓·입, 日·구지)

口의 祖語는 「히구지」로 看做된다.

「히구지」의 「히」는 數一(日·히) 即 顔面에서 一介라는 뜻에서 왔고 元來口를 가르키는 單語라고 할 수 있다.

即, 한介의 口라는 뜻을 가진 「히구지」가 分離하여 現在와 같은 兩國語로 된 것이다.

「구지」가 韓國語에서도 口를 뜻하는 單語로 使用된 實例는 아궁지(焚口)의 「궁지」를 들 수 있다.

또 文獻으로서는 三國史記地混志에 慶尙昌原의 舊名이 屈旨(구지·筆者·訓)이고 改名이 義安(임안, 筆者·訓)으로 나타나는 것을 들 수 있다.

數一을 뜻하는 數詞「하나」代身에 「히」가 使用된 理由는 하나코(鼻)의 「하나」와의 混濁을 防止하는데서 온 것 같다.

「히구지」 即, 「이구지」에서 派生된 語彙는 「이구지」의 이에서 이우 即, 유우(日·語), 이야기(韓·話), 이바구(韓·方·話)가 있고, 「구지」에서 구호(日·食)가 있다.

口는 또 하나시(한介의 시)로도 불리우고 이말에서 하나시(日·話)가 派生하고 있다.

또 口는 마시(높은데의 시)로도 불리우고 이「마시」에서 말(韓·話)과 머거(韓·食) 그리고 모오수(日·話)가 誕生하고 있다.

또 「구지」의 原形인 「구」에 數一을 뜻하는 「하」가 添加되면 「하구」 即, 「아구」로 되어 日本語의 아고(顎)의 語源이 된다. 또 「아구」에서 韓國語 아가리「口」가 誕生하고 있다.

3. 頭(日·아다마, 韓·머리)

頭의 祖語는 하마(하나의 머리) 또는 이것이 變化한 「아마」로 풀이된다.

頭는 人體最高部에 位置하고 있어 自然界의 높은 것

도, 「아마」를 命名되었다. 即, 茨도 「아마」, 山도 「아마」 또는 「야마」, 家庭의 母親도 「아마 即, 어마」로 불리웠다.

이러한 派生語가 發達함에 따라 基本語인 아마(頭)는 派生語와의 混濁을 막기 爲하여, 「아다마」로 變換한 것이 일본어로 되고, 「아마리」로 變하고 再次 「마리」 即, 「머리」로 變換한 것이 韓國語로 되었다.

이러한 「아다마」와 「아마리」에 派生된 語彙는 알(韓·卵) 다마(日·球), 마리(日·述), 모리(日·森), 모로(韓·山), 마루(日·丸), 마루(韓·棟)가 있다.

頭의 韓國語別稱인 「대가리」는 「대」가 높다는 뜻이고 「가리」는 알(韓·卵)의 變化로 볼 수 있다.

또 頭의 日本語 別稱인 「가시라」는 「가시」가 最高의 뜻이고, 「라」는 알(韓·卵)의 變化로 볼 수 있다.

4. 胸(韓·가슴, 日·무내)

胸의 祖語는 「가시무이」로 풀이된다.

「가시」는 하히(太陽)의 變化에서 오고 數一을 뜻한다.

「무미」는 多數의 物件 即 여기서는 多數의 骨(日호 내)을 뜻한다.

即, 全體로서는 하나의 뼈가 많은 곳을 가르킨다.

「가시무미」에서 發生하고 있는 語彙는 「카시」에서 카시(韓·刺)가 있다.

「가시」가 「가알」로 變하여 손가락, 젓가락의 「가락」이 派生하고 또 여기에 「라」가 添加되면 가라다(日·體軀)가 되고, 또 가리다(韓·隱蔽)가 派生하고 있다.

또 「가시무미」의 「무미」에서 몸(韓·體軀), 문는다(韓·顯藏)가 派生하고 있다.

5. 腹(韓·배, 日·하라)

兩國語를 합한 「해하라」가 祖語로 看做된다.

「배」의 原形은 「태」이고 韓國語에서는 太陽을 가르치고 數一을 뜻한다.

「하라」는 큰알(大卵) 即, 큰物件의 뜻이다.

即, 「해하라」는 한介의 큰物件의 뜻이 된다.

「해하라」의 「하라」에서 派生된 語彙는 하라(日·平野), 펠(韓·平埋地) 또 하라무(日·孕)가 있고, 또같은 人體語에 屬하는 등허리(韓·잡), 옆구리(韓·腰) 레노히라(日·手掌)가 있다.

또 손바닥(韓·手掌)의 「바닥」, 혀바닥(韓·舌)의 「바닥」, 그리고 하다(日·旗)도 「하라」의 變化로 볼 수

있다.

또, 「해하라」의 「해」에서 배모(韓·孕), 해부(日·滅), 하루(日·張), 부러(韓·增)가 있다.

7. 臍(日·해소, 韓·배꼽)

臍의 祖語는 「해시」또 「해고」이고, 그 뜻은 腹(배)의 子(韓, 시앗, 日·고).

「해시」가 變하여 「해소」로 된 것이 日本語이고, 「해고」가 「배꼽」으로 變한 것이 韓國語라 할 수 있다.

7. 手(日·대, 韓·손)

手의 祖語는 「투시」로 倣倣된다. 그리고 그 뜻은 二介의 物體이다.

「투시」가 「대소」로 變하고 이것이 分離하여 「대」는 日本語로 「소」即, 「손」은 韓國語로 된 것이다.

「대소」의 「대」에서 派生하고 있는 語彙는 대오(韓·觸), 때려(韓·打), 다다구(日·打), 다아오(韓·到), 우구(日·到)가 있다.

또 대루(日·出), 프오(韓·擲)도 있다.

그리고, 「대소」의 「소」에서 사와루(日·觸), 소사(韓·擲)가 있다.

8. 足(日·아시, 韓·발)

足의 祖語는 「투하시」로 倣倣되고 그 뜻은 二介의 物體로 풀이된다.

日本語「아시」는 「하시」의 變化이고, 韓國語「발」은 「하시—하알—발」의 變化로 볼 수 있다.

「하시」에서 派生하고 있는 語彙는 하시쿠(日·走)가 있고, 「하시」의 「하」에서 하구(日·履), 「하시」의 「시」에서 신(韓·番), 신오오(韓·履)가 있다.

또 「하시」가 「하알」로 變한것에서는 하야구(日·歩速히), 빨리(韓·早速히)가 派生하고 있다.

또, 「하알」이 「아알」로 變한것에서는 아루구(日·步行), 걸어오(韓·步行)가 派生하고 있다.

또 「투하시」가 「투아알」로 變한 것에서는 다리(韓·脚), 달이오(韓·走)가 派生하고 있다.

9. 目(韓·눈, 日·매)

目의 祖語는 「투미」이고 그 뜻은 二介의 物體이다.

韓國語의 「눈」은 「투」에 該當되는 말이고, 이렇게 된 原因은 他의 「투」가 붙는 語彙와 混濁을 막자는데 있다.

「투」를 擇한 理由는 「눈글」의 「물」에 起因하고, 「물」이 「투」로 變한 例는 늪(韓·沼澤地), 누마(日·沼)가 있다.

「투미」에서 派生된 語彙는 나미다(日·涙), 미루(日·見), 보오(韓·見), 눈매(韓·눈의模樣)가 있다.

10. 耳(韓·귀, 日·미미)

耳의 祖語는 「기기」또는 「투기」였다고 풀이된다.

韓國語에서 드기오(聽)가 있고, 日本語에서는 기구(聽)로 나타나는데 있다.

「귀」는 「기기」의 變化로 볼 수 있다.

日本語에서 「기기」가 「미미」로 變한 理由는 頭髮의 語源이 亦是 「기」로 나타나는 데에 있다.

「미미」로 된것은 耳를 머기(下部의鬚)로 表現하여 기(頭髮)와 區別 한에서 온 것 같다.

11. 頰(日·호호, 韓·볼)

頰는 顔面兩側에 있는 關係로 「호호」로 表現된 것이 그 祖語이고 「호」가 「리」받침을 取하여 複數로 된 「홀」이 이것이 再次 「볼로」變한것이 韓國語라 할 수 있다.

12. 乳(日·지지, 韓·젖)

乳의 祖語는 「시시」였고, 이것이 「지지」로 變한것이 日本語이고, 「시시—지지—것」으로 變한것이 韓國語이다.

13. 毛(日·개, 韓·털)

毛의 祖語는 「기물」로 풀이된다. 그 뜻은 「기」의 辭이다.

韓國語에서도 毛를 「기」로 불렀다고 볼 수 있는 證據는 羽毛의 「깃」것을 「깃」으로 부르는데 있다.

「기물」의 「기」에서 派生하고 있는 語彙는 깃(韓·羽毛), 길다(韓·長), 기모노(日·着物)가 있고, 「기」가 「개」로 變한 것에서는 개(日·毛), 개(韓·犬)가 있다.

또 「기」가 「겨」로 變한것에서는 겨물(韓·脇毛), 겨(韓·麥·稻毛)가 있다.

14. 齒(韓·잇빨, 日·하)

齒의 祖語는 「하알」로 풀이되고, 「하알」의 뜻은 太
陽같이 환한即, 白色의 物體로 풀이된다.

韓國語에서 白色을 하얀色이라고 부르는데서 「하」의
解釋을 取했다.

그리고 「잇빨」의 「입」은 勿論 口(韓·口)이다.

日本語의 「하」는 「하알」의 「하」만을 擇한 것이다.

15. 爪(日·수매, 韓·톱)

爪의 祖語는 「두미」이고, 「두」는 이두두(日·數五)
에서 오고 多數로 뜻하고 「미」는 物體의 뜻이다.

即, 「두미」는 多數의 物體로 풀이된다.

日本語 「수매」는 「두미」의 變化이고 韓國語 「톱」은
「두미」의 短縮形으로 變化한 것이다.

16. 骨(日·호내, 韓·뼈)

骨의 祖語는 「호미」로 풀이되고 그 뜻은 붉은 物體이
다.

即, 骨은 取去되었을時 血液이 附着하고 있는에서
이렇게 붉어온 것같다.

日本語 「호내」는 「호미」의 變化이고, 韓國語 「뼈」는
「호내」의 「호」가 變換한 것이다.

17. 顏(日·가호, 韓·얼굴)

顏의 祖語는 「가호얼곳」으로 看做한다. 그 뜻은 「가」
가, 外部(韓·가), 「호」는 赤色(日·호호), 그리고 「얼
곳」은 結氷(韓·어려)하는 個所로 풀이된다.

「얼굴」을 뒷받침하는 말은 韓國語에서 顏의 別稱이
「낫」으로 即, 露出의 뜻으로 나타나는에 있다.

18. 肩(韓·어깨, 日·가라)

肩의 祖語는 「아기」로 풀이되고, 그 뜻은 크게 나온
物體이다.

韓國語 「어깨」는 「아기」의 變化이고, 日本語 「가라」
는 「아기다」의 「기다」가 變化한 것으로 본다.

「다」는 韓國語의 이다(有)를 뜻한다.

「아기」에서 派出된 語彙는 와기(日·脇), 옆(韓

橫), 어비(韓·負), 오후(日·負), 그리고 없다(韓·無)
가 있다.

19. 心臟(韓·마음, 日·고고로)

心臟即 마음의 祖語는 「마호고고라」로 풀이되고, 그
뜻은 「마」가 마(頭)即, 最高를, 「호」는 호호(頰) 即,
赤色을, 「고고」는 脈動을, 그리고 「라」는 物體로 되어
眞紅色의 脈動하는 物體가 된다.

「마호고고라」에서 派生되고 있는 語彙는 마흔(韓·
多數), 고고라(日·多數), 곱(韓·倍數)이 있다.

以上 人體語檢討에서 人體器管의 名稱은 始初 「고」
「미」「시」 또는 「알」이라는 原始語가 中心이 되어 成
立되고, 이러한 基本語彙가 土著로 되어 周圍의 事物
名稱이 定해졌다.

그리고, 周圍의 事物의 名稱이 人體語에 比肩되어
同一한 名稱이 賦與된 結果는 相互間에 混線이 나타
남으로 人體語는 數量에 依據하여 識別할 수 있는 特
徵을 살려서 原始語에 數一에 該當하는 太陽의 稱號가
結付되거나 또는 月의 稱號에 該當하는 名稱이 賦與되
어서 漸次 人體語가 發達해 나갔다.

그리고, 數詞에 依據하거나 또는 그 形變에 依據하
여 造語된 이러한 人體語는 長期間 使用함에 따라 效
詞等에서는 修飾語가 漸次被修飾語의 뜻을 가지게 되
어 이 時期에 가서는 兩者가 分離하여도 意志傳達이
되므로 兩者는 分裂하기 始作한다.

그리고, 分裂한 修飾語와 被修飾語는 子音, 母音,
短縮, 複數等の 形態를 取하는 現象이 일어나는 것이
通例이다.

以上の 理論을 手를 뜻하는 「두시」를 擇하여 說明하
며 手는 原始語에서 「시」다음 「두시」, 이말이 「대소」
로 變하고, 다시 分離하여, 「대」 그리고 「소」는 「손」
으로 變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理論을 뒷받침하는 實例를 三國史記地理
志에서 求하면 慶南軍威의 舊名은 奴同覓 또는 奴豆覓
으로 나타나는 것을 들 수 있다.

軍威는 韓國語 구멍(孔), 日本語로서는 구비(首)의
漢字를 利用한 音變이고, 奴同 即, 奴豆는 日本語의 노
도(喉)의 音變이고, 覓(覓)은 韓國語의 목(喉) 또는 喉
살(喉의 肉)의 「며」의 音變하는 것이 判明되어, 喉의
韓日兩國語가 未分離狀態로 나타난다.

本文에 나타난 韓日兩國語의 重要人體語의 祖語와이

<P 22에 계속>

国内 電氣界

動靜

請時에 買入하는 社債로 轉換시켰다. 이 社債의 基準引上幅을 보면 25坪以下の 庶民住宅에 限해서는 從前대로 1萬圓으로 하고, 26坪以上の 住宅에 對해서는 100%引上하는 한편 그동안 適用하지 않았던 50坪以上の 高級住宅은 超過坪數마다 1萬圓씩 添加하는 累進制를 實施하게 되었다.

◇ 16日 商工部 主要重電機器 開發 關聯業體別 責任制 實施: 政府는 機械工業育成施策의 하나로 主要重電機器의 國產化計劃을 마련하고 業體別로 開發責任制를 實施하기로 하였다. 이 國產化計劃에 의하면 345Kv變壓器를 비롯한 13個의 主要品目을 對象으로 今年부터 오는 81년까지 國產化하여 韓電의 送配電施設 昇壓과 産業用 電力의 需要規模 大型化에 隨伴하는 各種機器 등을 國內需要에 充當함은 물론 輸出 産業化를 위하여 關係業體別로 責任지고 開發하도록 되어 있다.

◇ 19日 科學技術處 技術士 資格檢定을 實施: 科學技術處에서는 第13回 技術士資格檢定試驗을 오는 5月 30日 慶熙大學校에서 實施하기로 하였다. 技術者의 最高資格인 技術士의 資格檢定試驗을 今年에는 電氣, 電子, 通信 등 19個分野의 73個 種目에 對한 1次 筆記試驗을 實施하게 된다.

◇ 21日 第9回 「科學의 날」 記念式 舉行: 第9回 「科學의 날」 記念式이 崔圭夏國務總理官 비롯한 崔亨愛 科學技術處長官과 科學界 人士 1,00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市民會館에서 盛大히 舉行되었다. 이날 式典에서 崔總理로부터 今年度 科學技術賞인 3名에 對해 大統領賞과 6名에 對한 勳章授與가 있었다.

◇ 韓電 任職員 46名을 解免: 韓電은 庶政刷新과 關聯하여 部長級 3名을 包含한 44名의 職員을 解任시켰다. 이번의 人事措置는 最近에 實施한 自體監査에서 發見된 物資購買節次의 過失에 對한 問責으로 取해진 것이며, 이에 對한 社損 1億2,900萬圓은 金額 回收하였다고 하는데 辛基祚 副社長과 洪東震 理事는 事故에 對한 道義的인 責任을 지고 辭表를 提出하였다.

◇ 22日 韓國精密機器센터 創立 10周年 記念式 舉行: 韓國精密機器센터 創立 10周年 記念式이 崔鍾洙 工業振興廳長을 비롯하여 金東圭 商工部 次官 工業次官補, 朴勝燾 電子工業振興會 會長 등 來賓 多數와 任職員 20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盛大히 舉行되었다.

◇ 第21回 「逕信의 날」 記念式 盛了: 逕信部는 第21回 「逕信의 날」 記念式을 逕信公務員 訓練所 大講堂에서 兪승원 國會 交通委員長 및 歷代 長次官 등 内外來賓 多數가 參席한 가운데 盛大히 舉行하였다.

< P 7에서 계속 >

祖語에서 誕生한 兩國의 現代語를 比較한 結果는 別表와 같다. (本文 轉載 및 翻譯은 不許함)

人體語의 語祖

原始語	祖語	語意	韓國語	日本語
鼻 고	하나고	하나의 物體	코→코	하나
口 구	히구지	하나의 物體	히→입	구지
頭 마	하마	하나의 物體	마→머리	아(다)마
胸 무미	가시무미	하나의 많은 物體	가시무→ 가슴	무미→ 무내
腹 하알	해하라	하나의 큰 物體	해→배	하라
手 두시	두시	兩個의 物體	시→손	두→대
足 (두)하시하시	하시하시	兩個의 큰物體	하시→발	하시→ 아시
目 두미	누미	水分의 物體	누→눈	미→매
耳 기기	기기(머기)	—	기기→귀	미기→ 미미
頰 호호	호호	—	불	호호
乳 시시	지시	—	젖	지시
毛 기	기들	物體의 群	들→털	기→개
齒 하알	하알	白色의 物體	빨	하
爪 두미	두미	多數의 物體	두미→톱	수애
骨 호미	호미	赤色의 物體	호→뼈	호내